

선교헌신 예배 순서

MISSION DEVOTIONAL SERVICE ORDER

2025년 06월 22일 오후 2시 ☆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.
사회: 최은재 집사

I. 영광과 감사

☆예배에의 부름.....사회자
주님께 찬양을.....찬양단과 함께
신앙고백.....다같이
성서교독.....110(통 74) 선교주일.....다같이
찬송.....1(통 1)장.....다같이
기도.....김면건 집사

II. 언약의 말씀과 헌신 (말씀선포 시간에 유초등부는 교육관으로 이동합니다)

성경봉독.....요 17:9-19.....이주희 집사
특송.....선교부
말씀선포.....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.....김수길 선교사
헌금.....498(통 275)장.....각자의 예배 처에서
봉헌기도.....김태규 목사

III. 새 결단과 파송

알림과 나눔.....김태규 목사
☆ 찬송.....510(통 276)장.....다같이
☆ 축도.....김수길 선교사

IV. 성도의 교제 (hall에서)

♥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세요~~~

예배를 위해 섬기는 분들

PEOPLE WHO SERVE THE CHURCH

	기 도	성경봉독	헌 금	안 내	봉 사
06 월 22 일	김면건 집사	이주희 집사	회계와 봉사자	안내 부원들	봉사 부원들
06 월 29 일	김신영 집사	박수린 집사	회계와 봉사자	안내 부원들	봉사 부원들
07 월 06 일	이권형 집사	김은혜 집사	회계와 봉사자	안내 부원들	봉사 부원들
07 월 13 일	정찬도 집사	최은진 집사	회계와 봉사자	안내 부원들	봉사 부원들

교 회 소 식

SHARING AND ANNOUNCEMENT

-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.
- 먼 길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김수길 선교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. 선교사님은 그리스 데살로니키에서 집시들을 위하여 사역하십니다.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선교헌신예배를 드리는 선교부를 위하여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.
- 새벽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으며, 금주 여전도회 성경공부는 The Orchard에서 있습니다. 회원들께서는 10시까지 오시기를 바랍니다.
- 다음주일(29일)은 야외예배로 드립니다. 예배는 11시이며, 장소는 Riverside Park, The Paddock, St. Neots, PE19 7SD입니다. 날씨와 준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날씨가 더운 관계로, 2층 교육관에서 중고등부가 예배 드리기가 거의 불가능할 지경입니다. 따라서 오늘부터 8월 말까지는 본당에서 예배 드리도록 합니다.
- 다음 주일(6일) 예배 후, 저녁 7시 30분부터 부서장 회의로 모입니다.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.
- 7월 12일(토요일)은 청교도 선조들이 살았던 기독교 유적지 투어를 합니다. 참여하실 분들은 새신자 부장이신 장성미 집사님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7월 19일(토요일)은 런던 노숙자 섬김의 날입니다. 함께 수고해 주실 분들은 선교부장이신 석은정 집사님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.
- 헌금은 online(Cambridge Yeolim Church, 20-17-20/ 80249785)으로 하시고, 특별한 경우에만 출입문 입구에 비치된 헌금함에 헌금 하시기를 바랍니다.
- food bank를 연중 운영합니다.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설탕, 시리얼, 그리고 병이나 캔에 든 식품이면 무엇이든지 가지고 오셔서, 트롤리 안에 두시면 됩니다.
- 형주가 더욱 건강하고 살도 오르게 하시고, 연약한 교우들과 가족들도 더욱 건강하고, 하나님의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함께 기도합시다

LET US PRAY TOGETHER

- 열림교회가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도록
- 김수길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
- 다음 주일에 있을 야외 예배를 위하여
- 방학을 맞은 청년들을 위하여
-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, 그리고 형주와 여러 교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

정기 집회 안내

SERVICES AND MEETINGS

	주일 예배	유초등부	중고등부	청년부	새벽기도
시간	주일 2:00PM	주일 2:00PM	주일 2:00PM	주일 4:00-6:00	월~금, 6:00AM
장소	본당/ 각처소	본당&교육관	2층 교육관	2층 교육관	Zoom으로
셀 그룹 모임: 각 셀 별로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따라 모임을 가집니다. 문의는 각 셀 리더께 해주세요.					

매일 경건의 시간

EVERY DAY'S DEVOTION AND PRAYER

요일	성 경	찬 송	요일	성 경	찬 송
23(월)	대하 20:1-37	088(088), 299(418)	27(금)	대하 24:1-27	331(375), 502(259)
24(화)	대하 21:1-20	259(193), 287(205)	28(토)	갈 03:1-29	284(206), 516(265)
25(수)	대하 22:1-12	249(249), 350(393)	29(일)	갈 04:1-31	293(414), 401(457)
26(목)	대하 23:1-21	328(374), 447(448)			

매일 정한 시간에 먼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 하십시오

읽으면서 교훈을 얻는 코너 (READING AND GAIN)

소금 같은 사람

류시화 시인의 '소금'이라는 시에는 이런 뜻귀가 있다. “소금이 바다의 상처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. 소금이 바다의 아픔이란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. 세상의 모든 식탁 위에서 흰 눈처럼 소금이 떨어져 내릴 때, 그것이 바다의 눈물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. 그 눈물이 있어 이 세상 모든 것이 맛을 낸다는 것을” 시인이 소금을 <바다의 상처>, <바다의 아픔>, <바다의 눈물>이라고 표현한 것은, 그 소금은 바다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 만들어졌기 때문일 것이다. 다양한 조미료 중에서도 소금은 고유한 맛으로 우리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. 달콤한 설탕은 인생의 쓴맛을 잊게 해 주고, 고소한 참기름은 텅텅한 삶을 마치 신선 생활처럼 달콤하고 고소하게 바꿔준다. 화끈한 고춧가루는 단조로운 일상을 뜨거운 열정으로 바꿔줄 수 있다. 그러나 이들 중에서도 소금은 단순히 짠맛을 넘어서는다. 조금 덜 달콤하거나, 덜 고소한 음식은 별로 불편 없이 먹을 수는 있지만, 소금 없는 요리는 상상할 수 없다. 소금의 맛이 바다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듯, 우리의 삶도 사랑과 섬김과 희생이 있어야, 소금처럼 비로소 진정한 맛을 낼 수 있을 것이다.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성도들을 향하여 “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?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”(마 5:13) 라고 하셨다. 우리의 삶은 우연히 존재한 것이 아니라,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음을 명심하자. 소금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임도 기억하자.

교회로 찾아 오시는 길과 약 도 (MAP AND DIRECTION)



교회 주소(ADDRESS): Castle Street Methodist Church, Castle Street, Cambridge CB3 0AH
Navigation 사용시에는, 2 St Peter's Street, CB3 0AH 로 입력하시면 주차장으로 들어옴

주보 제 31-25

2025.06.22

대한예수교
장로회

케임브리지 열림교회 Cambridge Yeolim Church

영구표어: 바르게 배우고, 바르게 믿고, 바르게 살자

올해의 표어: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



성도의 생활 수칙: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

담임목사: 김태규/ 교역자: 이형진 목사, 이도현 전도사

성가 대장: 최명옥/ 지휘: 최은진/ 피아노: 김대연/ 오르간: 김미정/ 첼로: 유소영/
찬양 단장: 이해란/ 바이올린: 오현지, 이태민, 이해린, 황우창/ 클라리넷: 실방 일레흐/
전자오르간: 이주희, 장현서/ 플룻: 김세민/ 영상: 권철웅, 배용민, 윤도선/ 드럼: 이권형/

후원 선교사들: 김수길(조속회):그리스, 김호정(이우연):영국, 신봉철(박정희):필리핀

▶ Mailing Address (사택): 5 Howgate Road, Cambridge CB4 3XL

☎ Phone: (01223) 573275/ 07837-840294

▶ Home Page: <http://cambridge.onmam.com>

▶ Email: kimtaekyu55@hotmail.com / uktkkim@hanmail.net